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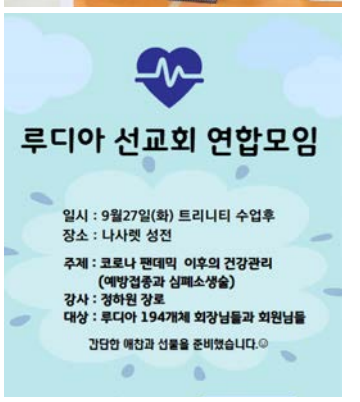




















여선교회 활성화 위한 연합모임 개최

마리아선교회 기도회, 에스더·루디아선교회 건강강좌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는 지난 9월 13일(화) 오후 1시 나사렛성전에서 마리아선교회 기도회를, 20일(화)에는 에스더선교회 연합모임을 개최했다. 27일(화)에는 루디아선교회 연합모임으로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여선교회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개인과 개체선교회, 연합회가 영육간의 강건함이 절실히 요구되어 만들어졌다. '강건함'이란 주제로 3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개체선교회 연합모임은 3주간 진행된다.

마리아선교회 기도회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사 49:1~3)라는 제목으로 선영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선영진 목사는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화살 통에 감추어둔 화살과 같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선한 능력과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20일 에스더 선교회 모임은 김분한 장로(간호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갱년기 전후에 있는 여성들이 육체적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영육이 강건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여선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밖에도 포토존, 빙고게임, 삼행시 짓기, 경품추첨, 선물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석한 회원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잊게 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 이화열 권사는 "여선교회의 비전은 크게 선교와 봉사, 지도자교육이다. 2022년 선교 목표인 동탄성전건축 후원은 선교의 최상의 기회라 믿고 4천여명의 여선교회 회원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방법으로 헌신하고 있다. 하반기엔 지도자훈련의 일환으로 개체선교회의 활성화라는 세부목표를 가지고 개체선교회 연합모임을 하고 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음을 믿는다. 여선교회도 봉사의 비전을 서서히 정비하며 그 지경을 넓히고 교회의 모든 지체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손의 수고로 돕는 일에도 마음을 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에스더 모임에 참석한 10교구 이재선 권사는 "오늘 연합선교회 모임의 주제로 진행된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 강의는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대충 아는 건강 지식만으로 자칫 소홀히 흘려 보냈던 부분들을 팩트 있게 알려주셔서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27일 루디아 선교회 연합모임은 나이로 인한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세대로, 정하원 장로(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코로나이후의 건강관리'로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과 심폐소생술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여선교회는 10월 25일 추계선교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도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로 진행될 것이다. 외부상인보다는 개체선교회와 광림교인들 중심으로 전도와 새신자 초청을 병행한다. 지난 어떤 바자회보다 은혜롭고 정겨운 친교의 장으로 꾸며질 추계선교바자회에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백명순 기자

2 광림의 강단 우리는 복음 전달자
3 광림 스토리 잠비아선교센터
4 하나님을 만나다 남선교회스데반회장 및 가족 수련회
5 다음세대 유아세례
7 믿음의 현장 광림 KSEC 개강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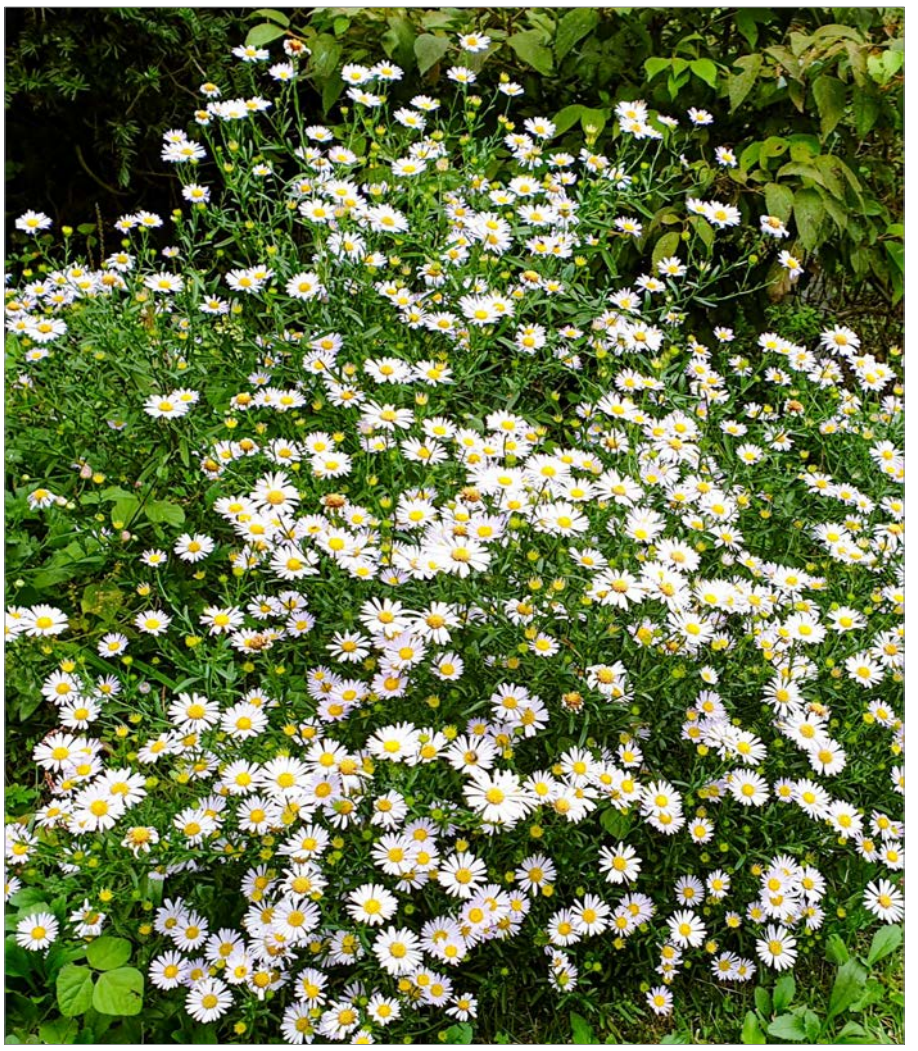
우리는 복음 전달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목회했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며,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둘째,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했습니다. 셋째,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통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넷째,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한 차원 더 높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며, 성장하게 하고, 죄악 된 모습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바울은 본문 7절을 통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꾼된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며,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3절

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첫째, 복음의 은혜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풍성하고 모든 죄를 덮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2절에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륜이란 무엇인가를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는 그것이 곧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 스트로벨(Lee Strobel)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있는 자, 상처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 등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찾아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될 때 참된 구원과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사명이며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 복음의 일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 목사님도 자신의 선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든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한 세상을 깨우기 위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깨우치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워야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며, 더 나아가 완전히 의로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종교적인 관습, 사회적인 관습, 인간적인 절망으로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며 그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며 이 세상을 깨우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자신에 대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을 섬김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일꾼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의 영광

복음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כבד)'에는 '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게 있는 것, 즉 장엄한 압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지식, 가치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압도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이 모든 시련과 환난까지도 압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관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즉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거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했으며, 어떠한 환난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허브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공정률 60% 넘기며 순조롭게 건축 진행 중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전경


건축 중인 교육센터


건축 중인 선교사 숙소

아프리카 잠비아 루사카에서는 〈잠비아 광림미션센터〉가 공정률 60%를 넘기며 순조롭게 건축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현지에서 김정석 담임목사가 참석해 기공예배를 드린 후 공사가 시작되어 전체 5개 건물 중 3개가 우선 세워지고 있다. 1차 공사로 직업훈련장이 들어서는 교육센터와 게스트 하우스를 포함한 선교사 숙소 2개는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이다. 현지 건축회사가 시공 중인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터다지기 기초공사에 이어 아프리카 기후에 맞추어 난방과 단열 시공이 필요 없어 건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교 교류 연합의 장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중부 아프리카 선교허브로 선교사들의 교류와 연합, 교육의 장소로 사용된다. 건축 중인 교육센터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는 신학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및 주변국 선교사들의 쉼과 안식, 친교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선교 방향은 교파를 초월해 한인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기관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미 센터 내 현지 법인 NGO를 설립했고, 현지 선교사와 잠비아 목사들과 연계한 선교 파트너쉽을 이루어 효과적인 활동을 협의 중이다.

교육을 통한 생활 인식 개선

미션센터의 주요한 사역 중의 하나는 직접 일 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에이즈 치료, 생활 인식 개선이다. 광림교회는 지난 8월 15일 미국연합감리교회(UMC)와 선교전략회의에서 교육센터가 완공되면 의료 전문 선교사와 교육 전문 선교사를 파송해 협력 선교를 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선교 방식(무상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일 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에이즈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거나, 13세 이하 조혼으로 인한 피해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생활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직업을 얻기 어려운 환경이라 일반 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 직업 교육을 통해 일자리 소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센터 부지는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 공장 근처로 산업기반 시설이 충분히 마련된 지역으로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이다.

한편 광림교회 4선교구 성도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드린 '아프리카 우물 헌금'으로 미션센터에 물탱크 타워가 설치 완료되어 식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선교허브 역할을 감당할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의 채플과 의료센터를 건축하는 2차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상희 기자

속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작은 예배 공동체'

하반기 속회지도자 교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나사렛 성전



2022년 하반기 첫 번째 속회지도자 교육이 9월 6일 10시 나사렛 성전에서 열렸다. 350석의 나사렛 성전에 가득 모인 성도들은 선교구별 지정 좌석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로부터 속회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하반기 첫 번째 교육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속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속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작은 예배 공동체이다. 속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소명을 각인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 모여진 공동체이다. 속회는 예배드리며 말씀을 연구하고 중보기도와 사귐, 친교를 통해 격려와 용기를 주는 영적생활의 훈련의 장이며 지도자 육성의 장이고 친교의 장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들 때에도 예배를 통해 중보기도하며 서로 위로가 되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영적 힘을 얻는다"라고 전했다.

광림의 성도들은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속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기간에도 속회로 모이려고 애쓸 때 "유대감이 강해졌고, 서로가 믿음 생활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교회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속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연결되어 성도들은 사랑의 영양분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었다.

하반기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들은 공동체의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책임을 배우며, 속회가 믿음 훈련의 장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담임목사로부터 직접 배우고 있다.

지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질 때 속도원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한다. 속장들은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인 회개를 통해 진솔한 간증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풍성한 열매가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훈련의 장이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속회에서 나눌 것을 결단했다.

속회지도자교육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 중이다.

소현수 기자

포토 뉴스



4Step 평신도지도자 교육
영적리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사회봉사관에서 박중섭 목사, 유제석 목사의 강의로 진행 중이다.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장천홀에서 김우진 목사의 강의로 진행 중이다.



어번던트라이프
두란노강의실에서 김정우 목사의 강의로 진행 중이다.

담임목사 동정



9/12~17	미주지역 64교회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편입감사예배
9/17	장로회 중앙연회 영성수련회
9/18	유아세례
9/19	중앙연회 부흥단주최 목회자사모 세미나 특강
9/20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9/21	수요치유의신학
9/24	월간회의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신앙 간증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 지구 단체 카톡방에 지구장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내일 마리아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은혜 받으세요!"
나는 시댁의 큰며느리다. 추석연휴내내 피로 때문인지 그 카톡이 갑자기 피곤하게 느껴졌다. 다음날, 몸은 마리아 기도회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아니었다. '피곤해...' 마음으로는 수십번도 더 되뇌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애찬관에서 비빔밥을 받아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밥을 맛있게 먹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환영인사를 밝게 나누고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고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감사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온 단하나의 문장은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때까지도 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께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며 빨리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준비하지 않은 예배에 대한 증거였다.

기타소리와 함께 목사님의 찬양이 시작되었다. 그순간, 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후회가 밀려왔다. 준비없이 예배에 참석한 나의 모습과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찬양이 되어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두손은 하나님께로 향했고, 내 목소리는 마스크를 넘어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었다.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나의 모습과 마음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배와 이렇게 나를 기다린 하나님께 감사했다.

빨리 가야 한다던 나의 말이 무색하게 예배시간을 꽉 채우고 나서야 예배당을 나섰다. 마음이 벅차올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살것이다. 마리아 기도회에서 은혜와 감사함을 나는 다시 한 번 느낀 것이다. 나를 위해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 매일 나를 이겨내고 단련하는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가는 그날, 잘 해냈노라고 미소 지으며 이야기 하고 싶다.



우미영 성도(6선교구)

제6회 물맷돌 프로젝트 - 청년작가 초대전 공모

기독교적 세계관의 작품 방향성을 제시할 청년 미술인을 초대합니다



주님께 받은 귀한 달란트로 기독교미술 문화사역을 위해 창립된 지 13년째인 광림미술인선교회는 지난 2016년에 만 23세 ~ 45세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광림미술인선교회 청년모임을 만들고, 기독미술인 청년작가를 위한 <물맷돌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물맷돌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일상에서 사용하던 익숙한 사냥도구인 '물매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였다.
이처럼 미술인으로 익혀온 재능과 작품을 가지고 세상 미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독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복음문화사역을 한다는 의미의 프로젝트이다.
<물맷돌 프로젝트>를 기획한 목적은 광림미술인선교회 젊은 작가 회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광림교회 내의 청년작가들을 발굴하여 개인전을 열기 힘든 청년 미술인에게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의 작품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영성 깊은 작가로 육성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로 장천갤러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광림교회 청년부와 문화홍보부에서 후원하며 광림미술인선교회의 주최로 미술인선교회 청년모임이 주관하는 <제6회 물맷돌 프로젝트 - 청년작가 초대전>은 오는 10월 9일(주일)부터 11월 4일(금)까지 장천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인전 응모를 신청하는 만 23세 ~ 45세의 미술을 전공한 광림교회 청년 중 1차 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친 작가 1인(혹은 2인)을 선정하여 장천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와 함께 전시 엽서 및 홍보, 간단한 오픈식 상차림을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작가는 광림미술인선교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부활절 기념전 및 추수감사절 기념전의 정기전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9월 4일(주일) ~ 9월 25일(주일)까지, 결과발표는 9월 28일(수) 오후 2시 이후 개별 연락한다.
<물맷돌 프로젝트>는 다양한 청년 미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존 미술인선교회 작가들과의 폭넓은 소통의 계기가 되며 광림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기독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의 청년미술인들 모두를 초대하는 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변영혜 기자

접수관련 문의

업로드관련: 관리자 김남주 010.6343.3346
skawn1012@naver.com
전시 관련: 총 무 서희진 010.7146.3693
suhheejin@naver.com
부회장 이시원 010.4187.6996
designfi6996@naver.com

스데반 선교회장 및 가족 수련회

9월 17일(토)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9월 17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본부 임원, 스데반선교회장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스데반선교회는 광림교회의 40~52세의 남성 성도들 모임으로 현재 10개 선교구 안에 총 39개 선교회, 35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2년반 이상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이제 그 침체의 고리를 끊고, 믿음의 다음 세대인 스데반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날 23명의 선교회장을 비롯 그 가족 등 8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윤사무엘 목사는 '지혜로운 삶'(엡 5:15~21)이란 제목으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였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길을 전한 스데반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하라"는 말씀도 덧붙였다.

야외로 나가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준 연합회 임원들의 손길을 통해 숯불바베큐로 애찬을 나누었고, 부대행사로 성경퀴즈 맞추기 등 레크레이션과 아이들 김밥 만들기, 과일청 만들기 등 가족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순서를 진행하였다.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온 안병태·문미나 집사(28교구)는 "그동안 다른 선교회와는 교류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교회 내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다. 내가 속한 선교회가 잘 되어 남선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는데 힘을 더하고 싶다. 오늘 총연합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많은 수고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앞으로 나도 후배 스데반에게 내리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기연 장로는 "선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회장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스데반 선교회장 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 얼굴도 익히며 어떻게 하면 선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의논하면서 동기부여도 했으면 한다. 특별히 스데반은 가족들과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이 즐거우면 회장들도 만족하고 사명감과 소속감도 더 갖게 된다. 향후에는 웨슬레를 비롯 다른 선교회 모임 활성화에도 노력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청년부

몽골과 태국에 피어난 복음의 꽃

<2022 청년부 해외 단기선교> 9월 7일~13일까지 진행


태국 루엄타이 교회 아이들


태국 루엄타이 교회 어린이들의 부채춤


몽골 교회 워십 아카데미

광림교회 청년부의 <2022년 해외 단기선교>가 9월 7일 ~ 13일까지 몽골과 태국에서 진행되었다. 수개월 동안 해외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은 광림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선교에 참여하여 복음의 사명을 이루고 돌아왔다.

개신교 1%의 몽골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이지만 개신교인은 1%밖에 되지 않는 몽골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침체와 낙망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영적인 회복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교제가 간절히 필요하였다.

지난 9월 7일(수)~ 13일(화) 진선규 전도사를 포함한 10명의 팀원들은 몽골에 있는 광림어잉게렐 미션센터와 어르비트 미션센터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다.

청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지쳐있던 몽골 교회와 교인들을 만나 애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기도로 준비했던 예배 회복을 위한 집회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윤경 청년은 "하나님께서 몽골 선교를 보내신 것은, 그 땅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카이로스의 선교였습니다"라고 했다.

몽골 선교팀과 몽골의 청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함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름을 느끼는 선교 기간이었다.

종교 자유와 불교의 나라, 태국

공식적으로 자유의 나라를 표방하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 태국. 하지만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밑바탕에는 불교 교육과 의식이 깔려 있어서 기독교인은 0.65%밖에 되지는 않는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다.

그러나 벼랑 위에서도 꽃이 피듯이 태국 땅에 광림의 청년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태국의 제2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약 7시간 정도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사는 포푸라 지역에 '루엄타이 교회'가 있다. 이곳은 광림교회 청년들의 헌신과 현지 성도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로 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등대와 같은 교회이다.

태국 선교팀은 현지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였고,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송지연 청년은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할 수 있었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9월 18일 주일, 2부와 3부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1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정윤우, (부)정병호, (모)이은영


오아린, (부)오재윤, (모)강혜림


최이레, (부)최나라, (모)김소원


고은우, (부)고준호, (모)장효정


이하율, (부)이충호, (모)권재현


조경아, (부)조완기, (모)우여진


권소리, (부)권민성, (모)김진희


강 산, (부)강승진, (모)이기쁨


박하일, (부)박현재, (모)권수미


전예성, (부)전은석, (모)이정하


김연우, (부)김웅렬, (모)최문정


손재이, (부)손영진, (모)탁지영


서윤우, (부)서동균, (모)김경희


이지수, (부)이주철, (모)김시내


최승준, (부)최영호, (모)서주원


이지호, (부)이상윤, (모)최지현


안이환, (부)안근영, (모)이진영


임준열, (부)임성빈, (모)허윤아


남지우, (부)남윤우, (모)진희언



신앙 간증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변치않기를

안녕하세요. 청년선교국 4교구 조성민 청년입니다. 먼저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광림의 성도님들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저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왔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대학을 다닐 때나 직장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 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저에게 베푸신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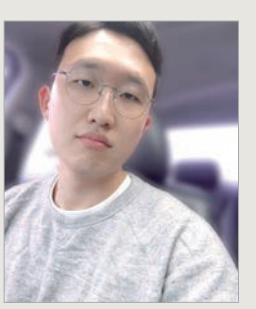
20살부터 서울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교회에 정착해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취직 후에는 직장생활에 집중하다보니 주일을 한번, 두번 빠지는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면 늘 저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항상 하시던 말씀이 "교회 잘나가고 있니?" 였습니다. 저의 대답은 "쉽지 않네..." 였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광림교회를 출석하는 한 청년과 연락을 하다가 "교회 다니고 있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자" 얘기가 나와 거리낌 없이 식사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어 늦게나마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이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딱 10년의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배 시작 전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습관처럼 나오는 제가 되지 않기를'입니다.

떠나있던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지, 의미없던 시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부족한 청년의 간증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민 속장(청년부)

목회현장

멈춰버린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자



유제석 목사(8선교구)

까마득했던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든 일상이 차츰 회복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회복보다 더 힘든 것이 신앙의 회복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삶의 회복은 지극히 당연한데, 신앙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을 심방하며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큰 수술을 치르며, 건강의 어려움으로 코로나 기간 중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의 염려와 주변 식구들의 걱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이 무뎌졌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고,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는, 곧바로 벧엘성전으로 뛰어오셨습니다. 그 길밖에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쏟아지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한참 동안 마음을 찢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걱정스런 마음에 집사님 댁을 방문했다가 통화하게 되었고, 벧엘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는데, 집으로 다시 찾아와 주실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심방요청이었지만 시간을 조정하여 서둘러 다시 방문하였고, 심방을 받으시면서 여전히 흐르는 눈물을 훔치시며, 지금까지 자신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가정에 멈추었던 신앙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은 여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내 신앙의 수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한 사람, 울며 씨를 뿌리는 진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바랍니다.

광림남교회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동탄성전건축을 위한 〈전교인 바자회〉 개최





광림남교회는 지난 2022년 9월 4일, 주일 1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 후까지 동탄 성전 건축과 2022년 광림남교회 가을운동회 기금 마련을 위한 전교인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씀, 이 말씀이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광림남교회 여선교회와 남선교회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함께하는 바자회로 모든 부서가 협력하였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였습니다. 교회 성전 앞마당은 동탄성전 건축과 가을운동회 사전 홍보로 바자회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당일에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행사 당일에는 간간히 빗줄기가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광림남교회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참여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바자회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일 판매했던 품목은 남선교회에서는 경북 상주 고랭지 기후로 재배한 팔음산 포도와 우리 가족들이 재배한 청정지역 고춧가루, 꿀, 여선교회에서는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국간장, 깨소금, 밥도둑 젓갈류와 반찬류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주신 광림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도를 걷고,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하면 쉽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큰 경험을 이번 바자회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자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동탄성전의 건축과 가을운동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비전의 시간이 그리고 은혜의 시간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윤진화 권사(광림남교회 남선교회 총무)

3선교구

주님과의 아름다운 〈수요 동행 프로젝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광림의 성도들의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계속 커져갔다. 3선교구 성도들도 주일 예배는 물론 주일 저녁예배, 수요 치유의 신학 예배까지 힘껏 참석하자는 열심히 생겨났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광림교회 본당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리, 남양주, 하남 등에 거주하는 3선교구 성도들은 저녁예배까지 참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며 차를 운행하더라도 나이 드신 성도들에게는 밤길 운전이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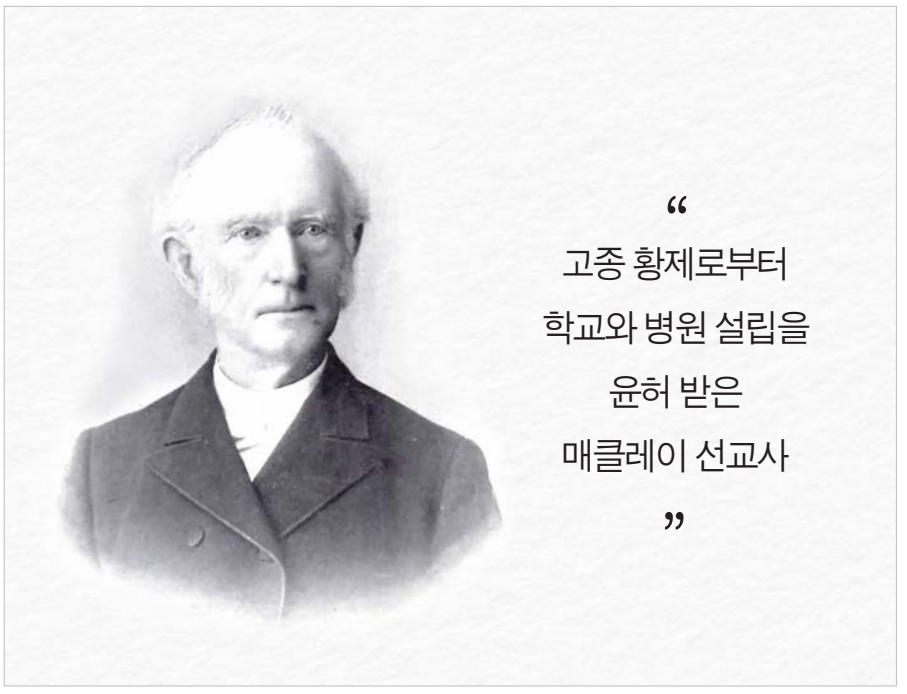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저녁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3선교구는 〈수요 동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요 치유의 신학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린 후 어두운 귀갓길은 같은 지역 성도들과 자동차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교구별로 한 주씩 정하여 수요예배를 드리며, 교구가 예배드리는 날은 성도 간에 카풀을 활용하여 예배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처음에는 3선교구를 섬기고 있는 선영진 목사가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매주 교구별로 돌아가며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교구별로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카풀을 지원하면서 점차 많은 인원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주 4~5대의 차량이 수요 치유의 신학을 위해 운행되고 있다.
동행 프로젝트의 유익은 그동안 저녁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가장 큰 유익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다. 귀갓길에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소와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기도제목까지 공유하는 영적 유익도 빼놓을 수 없다.

3선교구는 수요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저녁예배를 함께 드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가고 있으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충만함까지 누리고 있다.

유병권 기자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9

조선 선교의 개척자 매클레이 선교사



"고종 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 설립을 윤허 받은 매클레이 선교사"

로버트 새뮤엘 매클레이(Robert Samuel Maclay)는 1824년 2월 7일 미국 펜실베니아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감리교학교 디킨슨 대학(Dickinson College)을 졸업하고 게티즈버그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 파송 제의를 받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중국의 개방과 함께 갑작스럽게 파송을 받은 매클레이 선교사는 홍콩으로 가는 선상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았고, 선상에서의 뜨거운 성령체험을 통해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10년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일본이 개방되면서 미국 감리교회 본부로부터 일본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동안 네 아이들을 잃었고, 주일 예배 중 오르간을 연주하다가 쓰러진 아내 마저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서 아오야마(青山) 학원을 설립하고 연회를 조직하는 등 일본 선교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당시 김옥균이나 이수정(성서를 한글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일본에 방문하며 매클레이 선교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는 일본에서 조선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조선 선교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은, 가우처 박사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빙사절단으로 파견된 조선인들을 만난 가우처 박사는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국에 조선 선교비를 후원하며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은둔의 나라 '조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이에 매클레이 선교사는 조선을 방문하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서울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매클레이 선교사는 김옥균의 도움으로 고종 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 설립을 윤허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조선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매클레이 선교사가 조선 땅에 머문 시간은 2주 정도였지만, 그는 선교의 기반을 미리 닦아놓고 일본에서 조선 선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0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교에서 새로운 사역을 펼치다가 은퇴한 후, 1907년 8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하고 로스앤젤레스 로즈데일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은 물론, 아시아의 근대화와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다 이루고 잠든 것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광림평생교육대학원 (KSEC)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 시대 여가문화 생활

광림평생교육대학원(KSEC) 2학기 개강, 매주 목요일 사회봉사관



광림평생교육대학원(위원장 성은경 장로)이 9월 15일(목) 개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하게 지내던 수강생들은 지난 1학기에 이어 이번 2학기에 진행되는 여러 특강과 강좌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반가운 성도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들뜬 분위기를 보였다.

KSEC(Kwanglim Senior Education Center)는 광림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타교인들에게도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롭거나 자칫 무료해지기 쉬운 노년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가져다주며,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평생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학기 교육 일정은 9월 15일(목)부터 12월 1일(목)까지 12회이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5층에서 진행된다. 수강생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KSEC는 시설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 등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전 특강을 듣는다. 이번 학기 특강은 송영우 장로의 '삶의 이야기 - 뿌리'를 시작으로 김병남 장로의 '남미여행 - 페루', 박영준 장로의 신앙간증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영업 비밀' 등 다양한 주제의 유익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오후에 진행되는 분반 활동은 시간마다 1가지 수업을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오후 1시에는 줌바 댄스, 필라테스(요가), 인문학/철학 강의, 한국무용, 오후 2시에는 오카리나/우크렐레, 클래식 공연 감상, 컴퓨터, 라인댄스 등이 진행된다. 오후 3시에는 원하는 경우 합창반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실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2회의 야외학습이 예정되어 있다.

성은경 장로는 "KSEC라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와 수업을 통해 영육이 강건해져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중식제공은 떡과 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KSEC에서는 자원봉사나 특강교육에 뜻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김우성 권사 (010-2772-2247)
김문선 권사 (010-2010-2436)

이정순 기자

특강 계획표

일 자	교육내용	강 사
9/15	삶의 이야기 - 뿌리	송영우 장로
9/22	중등교육의 현황과 전교조 문제	이성재 국장 교총대외협력국장
9/29	내가 경험하는 한국정치/우월성	태영호 의원 국민의 힘
10/6	앵 콜 - 김연아	김명진 권사 MJ 문화센터
10/13	제1차 야외학습	청와대 및 국립박물관
10/20	코로나에 대비한 노인 건강	강창석 권사 고대건강 강사
10/27	남미여행 - 페루	김병남 장로 전 한국외대 교수
11/3	한국 IT산업의 현황/미래	고희동 장로
11/10	제2차 야외학습	내장산 혹은 설악산
11/17	간 증	박영준 장로
11/24	중국고사: 누가 왕을 죽였는가?	최홍대 선생
12/10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홍순철 장로 강남문화원 강사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7



악령을 쫓아내는 예수 마 8:28~29

산에서 내려온 예수는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인 가다라(거라사)에 이르렀다. 예수와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걸을 때 옷이 남루하고 전혀 씻지 않은 듯 더러운 두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였다. 두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큰 소리를 질러대기 일쑤였고, 힘이 장사여서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워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두 사람은 몸부림을 치면서 쇠사슬을 끊었고, 쇠고랑을 깨트려 던져버렸다. 누구도 엄청난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한 두 사람이 예수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태연하게 두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애걸하는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시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한 물음이었다. 그러자 악령이 몸을 떨면서 말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예수의 뜻은 확고했다. 귀신들은 다시 예수에게 간청했다.
"차라리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마침 그리 멀지 않은 산기슭에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자마자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게다가 군대 귀신이 들렸던 두 사람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돼지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악령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 **악령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_** 악령 들린 사람을 꾸짖으며 악령을 내쫓는 장면이다.
제임스 티소의 작품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악령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고장을 떠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배에 오를 때에 악령 들렸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허락하지 않으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또 한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벙어리 악령 하나를 쫓아냈는데, 악령이 나가자 벙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령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악령 들린 사람의 악령을 쫓아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 **소경을 눈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_** 예수 그리스도가 앞을 못 보는 소경(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묘사한 장면이다. **니콜라 콜롱벨의 작품**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라틴어 'Beelzebub', 신약성경에서는 사탄, 귀신들의 왕과 동일시 함)의 힘을 빌려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악령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악령을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광림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